

머나먼 亞문화전당

10인 대책위 ‘오월의 문’ ‘3분의 1 존치’ 중 택일 촉구
추진단은 “수용 불가”...별관문제 막혀 무산 우려도

‘옛 도청 별관문제 해결을 위한 10인 대책위’(이하 10인 대책위)가 광주 지역 시민·사회 단체의 별관문제 집중안인 ‘오월의 문’ 안과 ‘3분의 1’ 존치안을 정부에 수용 촉구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그러나 그동안 설계 변경 불가 입장을 고수해온 정부는 이 두가지 방안에 대해 모두 수용 거부방점을 밝힘으로써 옛 도청 별관문제는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로써 ‘별관사태’ 1년을 넘긴 광주 지역사회에서는 아시아문화전당 건립이 장기표류하거나 아예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있다.
박광태 광주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등으로 구성된 10인 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광주시 서구 라마다 호텔에서 서모임을 갖고 ‘오월의 문’ 안과 ‘3분의 1 존치안’ 두 가지를 정부에 제시, 택일 수용을 촉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오월의 문’ 안은 옛 도청 별관 1, 2층을 뚫어 터널식 입구를 만드는 대안으로, 지역 12개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한 ‘시민사회원탁회의’가 10인 대책위에 제시한 방안이다.

7월 15일을 최종시한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획기적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됐던 10인 대책위는 결국 ‘시민사회원탁회의’가 제시한 방안을 그대로 채택해 문광부에 전달하게된 셈이다. 그러나 문광부 추진단은 10인대책위가 마련한 토론회 등에서 ▲별관을 보존하도록 설계를 바꾸는 것은 오히려 5월 정신을 살리려는 전당 설계개념을 망가뜨리는 것이며 ▲별관을 전면 해체한 뒤 5·18 상징물을 세우는 대안 밖에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추진단은 또 전당 건립사업이 특별법까지 마련된 국책사업이므로 일부단체의 반대로 계획을 수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이병훈 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은 12일 “10인 대책위가 제시한 두 개 안은 이미 오랫동안 검토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답을 내놓은 마당에 다시 이를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더 큰 문제는 현정부가 문화전당 건립사업에 대해 적극 추진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문화관광부는 최근 ‘별관 사태’의 해결책으로 법원

의 강제집행명령을 앞세운 공권력 수용을 검토했으나 지역사회의 충분한 합의가 우선이고 정부로서는 광주가 반대하는 공사를 추진할 의사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수도 조성사업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내에서도 “문화전당의 적기완공을 위해 별관 강제철거라는 무리수를 택하기 보다는 별관문제가 스스로 풀릴 때까지 방치하자”는 자조 섞인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지역 사회에서 별관 논란을 매듭짓는 뚜렷한 방안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광주 문화수도 조성사업의 뿌리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0인 대책위에 참가하고 있는 박우선 의원은 “‘오월의 문’ 안을 정부에 수용하라고 촉구하는 것은 문화전당의 건립 지연을 지역에서 요구하는 것과 다름 없다”며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공사가 하루 빨리 재개돼야 하고 광주를 번영시킬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한-EU FTA 타결 임박 전남 농가 대책마련 시급

2년2개월을 끌어온 한국과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종착역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한·EU FTA가 타결되면 전남도에서는 양돈농가와 낙농가 등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3면>
외교통상부는 지난 11일 “(이명박 대통령) 13일 스톡홀름에서 개최될 스웨덴과의 정상회담에서 FTA 문제에 대한 논의한 뒤 관련 사항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혀 최종 합의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한국과 EU양측은 막판 쟁점으로 남아있던 관세환급 및 원산지 규정과 관련, 지난달 파리 통상장관회담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할 정도로 급진전을 봤다.
관세환급 문제의 경우 협정 발효 5년 후부터 역외산 원자재 조달에 중대한 변화가 있으면 환급 관세를 상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장치가 마련됐다. 원산지 규정과 관련 해선, 자동차의 경우 완성차는 역외산 부품을 45%까지 사용해도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원료 개러리 2



<50.3×40.9cm·캔버스에 유화>

최 향 작 ‘파꽃은 바람에 흩날리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흔한 꽃, 파꽃. 그림이 잘 되지 않아 무작정 시골길에 나선 50대 후반 여류작가의 눈에 비친 파꽃은 작가 자신의 모습이었다.
최향씨가 발견한 파꽃은 화려하지 않지만 생명의 아름다움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소박한 파꽃에 파랑, 노랑, 초록의 화려한 색을 입혀 ‘파꽃은 바람에 흩날리고’ 연작을 만들어 냈다.
차가운 색과 따뜻한 색이 빛어

내는 화려한 색채의 스펙트럼은 생동감을 더해준다. 또 잔 붓질로 오묘조밀하게 그려낸 꽃술은 입체감을 느끼게 해준다.
홍익대 미술대학 출신으로 뉴욕 한국 현대미술 초대전을 가졌으며 헝가리 기오르 비엔날레 한국전 등에 출품했다.
※ 광주일보 홈페이지(http://www.kwangju.co.kr)를 통해 작가의 보다 많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30일 나로호 발사 불만하겠네

남열해수욕장에서 생중계
전국 곳곳 축하공연 다채

이달 30일로 예정된 한국 최초 우주로켓 나로호(KSLV-I)의 발사를 기념, 고흥 남열해돋이해수욕장에서 생중계와 함께 축하공연이 마련되고 독도함에서 발사장면을 지켜볼 500명을 인터넷을 통해 선발하는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된다.
전남도는 오는 30일 오후 4시30분부터 6시까지로 예정된 나로호 발사를 축하하기 위해 고흥 나로우주센터 인근 남열해돋이해수욕장에서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발사장면 생중계와 함께 축하공연을 준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기상악화로 발사가 어려울 경우 나로호는 5일 이내

에 재발사될 예정이다
이날 발사는 우주센터에서 130명, 그리고 해군 독도함에서 500명이 지켜볼 예정이며, 육상 5km 이내 그리고 해상 3km 이내지역에는 일반인 출입이 통제된다.
또 발사 당일 오후 4시부터는 과학관 과학광장의 대형전광판 앞에서 나로호의 역사적인 발사장면을 보며 발사성공을 응원하는 ‘나로호 발사 성공기원 한마당’ 행사가 열린다.
이와 함께 아시아에서 가장 큰 상륙함인 ‘독도함’에서 발사장면을 관람할 500명을 선정하기 위한 온라인 이벤트도 진행중이다. 온라인 이벤트

를 통한 선발은 우주발사체 홈페이지(www.kslv.or.kr)에서 진행중인 발사 기념 대국민 퀴즈 이벤트에 오는 20일까지 응모한 사람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 /강필성기자 kps@



여수 앞바다서 본 우주 발사대

발사될 예정인 가운데 전남도와 과학과학관 등에서는 다양한 관람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은 여수시 남면 해상에서 바라본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에 위치한 나로우주센터 발사대 모습.

오는 30일 오후 우리나라 최초 우주로켓 나로호가

<여수시 제공>

